

‘아트광주’ 색 입힌 ‘예술장터’ 열린다

‘예술장터’ 제10회 광주아트페어(아트 광주 18)가 오는 9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 주제는 ‘One Piece, One Peace’다. 미래를 꿈꾸는 예술장터를 지향하는 슬로건으로 아트페어의 핵심인 예술 작품의 소장과 더불어 예전 ‘1가구 1작품’이었던 예향 남도의 면모를 되살려 ‘아트광주’만의 색을 입혀보자는 의도에서 정했다.

광주예총이 주관하는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갤러리 부스와 작가 부스가 함께 운영되는 형식으로 치러진다. 한국을 비롯해 13개국 168개 부스가 운영되며 지난해 2개관에서 치러졌던 행사를 올해는 컨벤션 센터 3개관으로 확대해 대규모 행사로 치를 예정이다. 참여작가로는 강요배·윤석남·최욱경 등이 눈에 띈다.

갤러리 부스는 국내 71곳, 해외 12개국 18곳 등 모두 89개 갤러리가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광주 아트페어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국내 최고 메이저급 화랑인 서울 학교재와 박영덕 화랑이 참여해 개 눈길을 끈다. 두 화랑은 광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가지고 나올 예정이다. 해외의 경우 지난해와 갤러리 수는 같지만 스페인·독일·이탈리아 등이 처음 참여하는 등 참가국이 9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어나 좀 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의 경우 갤러리 S, 이화갤러리,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나인갤러리 등 14개가 참여하며 조선화랑, AP갤러리 등 서울에서 22개 갤러리가 미술애호가들을 만난다.

art:gwangju:19
9월19일~22일 김대중센터

13개국 168개 부스 운영

3개 특별전 진행...광주14곳 참여

서울 학교재·박영덕 화랑 눈길

작가 부스는 지난해보다 20여개가 줄어든 79개로 확정됐다. 화랑 중심 페어 등 행사의 ‘정체성’에 고민이 있지만 광주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할 때 작가 부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점을 감안, 타 지역 작가 참여를 늘리고 개별 부스를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참여작가는 총 11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3명의 선정위원이 확정했다.

올해는 3개의 특별전을 진행한다. 소치 하러부터 의재 허백련까지 남종문인화의 맥을 찾는 특별 기획전이 열리며 10명의 청년작가들의 실험작을 만나는 ‘청년! 이상異常하고 이상理想하라!’전을 진행한다.

또 하나의 특별전은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도 참여하는 미국 작가 데이비드 장의 대형 설치 작품을 만나는 기획전이다. 더불어 전덕진·김봉수·왕광현·김승우·우성립 등 5명의 설치 작품이 전시장 곳곳에 설치된다. 그밖에 아트마켓과 체험존, 강연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행사의 성과를 인정받아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특별기획전과 강연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다.

올해 아트페어는 그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운영단체로 광주미술협회가 선정돼 행사를 준비하던 중 2016~17년 보조금 부실 정산 문제가 유죄판결을 받으며 자격이 박탈됐고, 지난 6월 재공모에서 광주예총이 선정돼 일단 닷을 올리게 됐다. 행사를 치르지 못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납해야하는 상황과 어떻게든 아트페어의 명맥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른 결과다.

광주예총은 기존의 예술감독 체제 대신,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행사를 준비해왔으며 전반적인 전시 구성은 소빈 작가가 전시기획부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일부에서는 행사를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을 광주미협회가 맡는 건 결국 광주미협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또 운영위원의 구성 역시 비전문가와 미술계 원로 중심으로 꾸려져 실행력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미협과의 문제는 법적인 검토를 끝내 별 문제가 없다”며 “지금까지 노후를 살려 올해 행사가 잘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예총 임원실 회장은 “축박한 일정 때문에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지 의문이었지만 지난해 행사가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행사에서 갤러리 참여 등에 성과를 냈다”며 “어렵게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남은 기간 성실히 준비해 시민 중심의 미술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강하 삶의 여행자



‘여신, 시벨레스의 분수’

세계 각국 풍물 작품 전시, 10월3일까지 이강하미술관
14일, ‘脈맥, 이강하 삶과 작품세계’ 주제 학술세미나

‘그림으로 떠나는 세계 풍물 기행’
정열적인 스페인의 투우사, 눈이 부신 그리스의 산토리니, 해탈의 세계 인도, 남미의 초원까지.
화가 고(故) 이강하는 새롭게 만난 세상을 모두 화폭에 담았다. 해외여행이 흔치 않던 1988년 외국행 첫 비행을 탄 이후 그는 술한 나라를 탐방하고,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광주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이 이 화백의 흥미로운 여정을 담은 ‘이강하, 삶의 여행자’전을 6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한다.

이 화백은 초창기 일본과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고 만리장성 등 그곳에서 만난 풍광과 풍물들을 광주일보 등 지역 일간지에 그림과 여행기로 연재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여행자가 유럽과 지중해, 남미로까지 확장됐고 여기서 만난 ‘모든 것’ 역시 그림과 글에 담아 신문 독자들에게 간접경험을 제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에 전시되는 25점의 작품은 정열의 나라 스페인과 남미, 인도의 이국적인 풍광을 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일반적인 해외여행 스케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각국의 다양한 풍습과 문화의 특징까지도 함축적으로 담아낸 게 특징이다.

단순히 풍광을 그리기 보다는 캔버스 안 화면에 다양한 이미지들을 조합해 재구성한 방식을 차용, 각 민족 풍물의 주제를 부각시키며 시각적 긴장감과 함께 대상의 리얼리티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런 여행은 작가에게 광주적·남도적 시각과 세계관을 확대시키고 객관화시키면서 우리 민족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선 큐레이터는 “8월 휴가와 여행의 계절인 만큼 이강하 화백의 다양한 해외 풍물 작품들을 통해 ‘미술 관바캉스’를 하는 마음으로 관람을 하면 좋겠다”며 “이강하만의 시각과 독자적인 색감의 조화는 다른 공간에서의 타인과 나를 다시금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선물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정금희 전남대 교수 등과 함께 이강하 화백의 삶과 작품 세계를 탐구하는 기획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4일 오후 3시에는 미술관에서 제 1회 이강하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脈맥, 이강하 삶과 작품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예술연구소와 공동 주관한다. 양초롱·오병희·조인호씨가 발제를 하고 김희량·김영순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062-674-8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효석문학상 대상에 광주 출신 장은진 ‘외진 곳’

광주 출신 장은진(사진) 작가가 제20회 이효석문학상 대상(상금 3000만원)에 선정됐다.

이효석문학재단은 올해의 이효석문학상에 장은진 작가의 ‘외진 곳’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외진 곳’은 절대 빈곤 속에서도 배려하고 연대하는 이들의 삶을 두 자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린 작품이다.

심사위원단은 “소수자들을 향한 따스한 연대와 공감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시대적 응전력과 서정적 감수성 모두를 지니고 있는 뛰어난 작품”이라며 “끝까지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그들이 처한 삶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작가의 시선이 돋보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표된 중·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6 작품을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된 뒤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작을 뽑았다.

장은진 작가는 “과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열렬히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며 “좋은 작품을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다시 짓누를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작가는 이번 소설에 대해 “중심에서 밀려난 두 자매가 외진 곳이라는 ‘네모집’으로 옮기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며 “가난과 좌절,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고 덧붙였다.

1976년 광주에서 태어난 장은진 작가는 전남대 지리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지역 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2009년 제14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하며 중앙 문단에 이름을 알렸

다. 지금까지 소설집 ‘기진실현실’, 장편 ‘엘리스의 생활방식’, ‘날짜 없음’ 등 수준이 고른 작품을 펴냈다.

장 작가는 신춘문예 당선 때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독학으로 소설 공부를 해오고 있다.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기보다 오로지 창작에만 에너지를 쏟는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습작을 하는 편인데 매달 단편 한편은 꼭 써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작가는 작품을 쓰는 게 존재 이유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장 작가의 ‘쌍둥이 동생’ 김희진 씨도 2007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소설가다. 자매는 서로 격려하면서 외롭고 고독스러운 창작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 수상작 ‘외진 곳’의 주인공인 두 자매의 이야기는 현실 속 작가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장 작가 자매의 이야기로 오버랩되는 면도 있다.

한편 시상식은 다음달 7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본선 최종 후보인 김종광, 김재원, 손보미, 정소현, 최은영 작가도 우수작품상과 상금 2000만원을 받는다.

/박석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름

‘otro전’ 6일~29일 소암미술관

소암미술관(관장: 양동호)은 6일부터 29일까지 정년작가 단체인 ‘Otro전’을 개최한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예술그룹 ‘Otro’ 회원 중 4명의 작가를 초청한 기획전이다.

‘Otro’는 스페인어로 ‘다름’을 뜻하는 단어로 다른 생각과 감성으로 살아가는 서로의 차이를 직시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표현과 상상을 이어주는 예술을 매개로 함께 소통하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다.

전시에 참여한 김은경, 박다운, 손지원, 임형준 4명의 작가는 미술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신진작가로 모두 조선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무심한 돌들에 눈을 붙이고 관람자를 마주하는 김은경 작가와 가볍게 색채로 드로잉한 듯 하지만 현대인의 정신적 분열을 형상화한 임형준 작가는 살아가면서 무



‘꿈을 찾아서’

더진 감정을 자극한다. 떠 거울 위에 물을 뿌려놓고 일순간 멈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박다운 작가는 작품과 싸늘한 들판 위로 생명의 몸짓을 표현한 손지원 작가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전시 오픈 행사 6일 오후 6시. 문의 062-671-771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